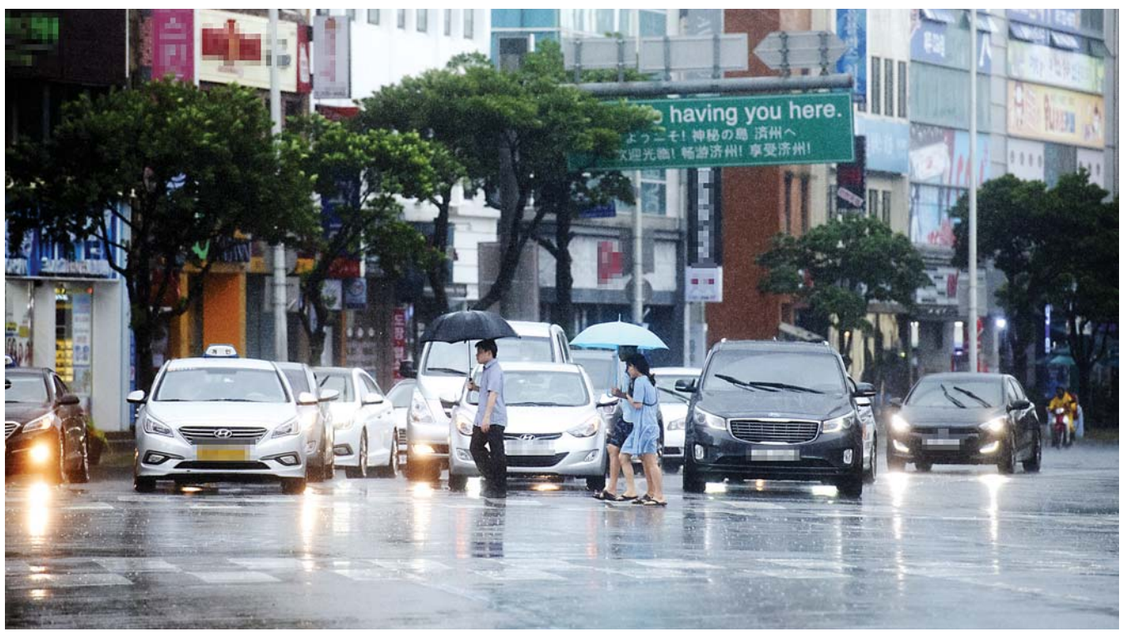
신차·중고차 구입은
제주은행 자동차대출
우대금리 이벤트 진행중 (~ 8월 31일까지)
제주은행 문의 : 1588-0079(7번)

참간 30 since 1989 주년
한라일보

제주골프회원권 거래전문
(주)탐라회원권거래소
TAMRA MEMBERSHIP EXCHANGE
문의 : 064)745-8884

漢拏日報 제8922호 제주의 대표 신문 ihalla.com 기사제보 750-2214 | 구독 750-2314 | 광고 750-2828 | 2019년 8월 12일 월요일(음력 7월 12일)



비 오는 날 서광로 풍경 11일 9호 태풍 '레끼마'의 간접 영향권에 든 제주엔 강풍을 동반한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며 더위도 한 풀 꺾였다. 특히 이날 제주 전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비날씨가 이어지면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제주시 서광로에서 이상국수습기자

산성비 '무방비'…기준·제도 미흡

대체로 pH 5.0 미만 이지만 1월엔 pH 4.1까지 강해져
장비 2개 중 1개 노후… 1개는 고장으로 운영도 중단
환경부와 산도 기준 값 달라 혼선… 데이터 축적 수준

제주지역에 내리는 비 대부분이 산성비임에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산성비 문제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 분야 최대 이슈인 미세먼지에 밀려 저감 대책과 제도 마련에 소홀한데다, 관측 장비 일부가 고장으로 운영이 멈춰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산성우 측정망 운영결과를 보면 지난 7월 내린 비의 평균 산도(pH)는 4.9다.

연구원은 pH값이 5.0 미만일 경우 산성비라고 하고 있다. pH값이 낮아질수록 강한 산성을 의미한다.

월별로 보면 ▷6월 4.4 ▷5월 4.4 ▷4월 4.5 ▷3월 4.4 ▷2월 4.7 ▷1월 4.1 등으로 조사됐다. 1월에 가장 강한 산성비가 내렸다는 뜻이다.

예년 결과도 다르지 않다. 지난해와 2017년의 월별 산성우측정망을 보면 10월과 4월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pH 5.0 미만의 수치를 보였다.

상황이 이런데도 관측 장비는 부실한 상태다. 연구원은 산성우측정망을 지난 1995년에 설치하고, 10년 뒤인 2005년 한 차례 교체한 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무려 15년째다.

결국 지난해 12월에는 관측 장비 총 2곳(연동·어승생) 중 1곳(연동)이 고장 나 8개월째 운영이 멈춰있는 상태이다.

또 연구원의 산도 기준 값과 환경부 기준 값이 달라 혼선을 부르고 있다. 연구원은 pH 5.0 미만일 경우, 환경부는 pH 5.6 미만일 경우를 이상적인 중성 값으로 하고 있다. 차이가 무려 0.6이나 된다.

pH값은 로그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값이 1이 낮아질 경우 수소이온의 농도는 10배, 2가 낮아지면 100배 증가한다. 환경부 기준값으로 보면 제주지역 비의 산도에 대한 분석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제주도는 데이터를 축적하는 수준에 머물렀을 뿐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은 요원한 상황이다. 산성비는 수질을 산성화시켜 농작물과 산림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거나 인체의 눈이나 피부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 경보제처럼 도민에게 위험성을 알리는 예보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올해 예산 8000만원을 확보해 연동에 새로운 신규 산성우측정망을 설치할 계획"이라며 "미세먼지 등과 함께 종합적인 대기오염 수준을 측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의 pH값은 탄산가스(CO_2)의 농도 기준이며, 연구원의 pH값은 미국 연구발표에서도 나온 아황산가스나 질소산화물 등 산성오염물질이 모두 포함된 기준"이라며 "pH값 5.6 미만으로 설정한다면 산성우가 아닌 지역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제주가치 담아 도시 품격 높인다"

■ 도시디자인담당관 출범 1년… 추진 성과와 과제

비중 키운 '도시디자인'… 정책 활성화 발판 마련
편리하고 안전한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본격 구축

제주다운 '디자인도시'를 꿈꾸다

제주를 제주답게 디자인하고,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을 위해 지난해 신설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디자인담당관이 이달말이면 출범 1년을 맞는다.

전국 지자체 최초 유니버설 디자인 전담팀이 신설되는 등 '디자인'에 대한 비중을 키우면서 제주의 디자인과 공공디자인 정책이 도약할 수 있는 활성화 발판이 마련됐다.

현재 도시디자인담당관은 제주의 정체성을 담은 개성있는 디자인으로 품격있는 도시이미지를 완성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중이다. 사람과 자연의 가치를 우선하는 도시디자인 구축을 목표로 달려온 지난 1년간의 추진 성과와 향후 방향을 살펴본다. >>관련기사 7면

▶3개팀 신설… 제주형 도시디자인 조성 추진=도시디자인담당관은 기존 도시계획분야와 디자인건축지적분야로 나눠졌던 업무를 통합해 확대·개편됐다. 공공디자인팀, 유니버설디자인팀, 디자인기획팀 등 3개팀이 신설되면서 제주 디자인계에 큰 변화를 꾀하고 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은 ▷청정 제주와 공존을 위한 경관 및 도시환경 조성 ▷도민 모두에게 보편적인 유니버설디자인 구축 ▷제주 이미지에 맞는 공공디자인 정체성 형성이라는 세가지 전략과제를 정하고 지속가능한 경관의 형성·관리체계 개선, 범죄없는 삼무형 도시환경디자인 구축,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 안전하고 쾌적한 무장애 사회환경 조성, 제주유니버설디자인(UD) 인증제 도입·시행,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제도 운영, 공공디자인 컨설팅 도입, 제주형 공공디자인 창출 등의 계획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1년 추진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주요 성과로 제주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오름·주변 주요도로 공공건축물 등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심의 가이드라인을 정립하고,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을 위한 기준정비와 환경개선 시범사업 추진을 비롯해 공공디자인 심의제도 도입으로 공공성과 편리성을 갖춘 품격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해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마을 셉테드(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도는 향후 제주를 유니버설디자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 공공건축물 전반에 UD적용을 추진하는 등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실질적 접목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 중점 경관관리구역 정비를 위한 경관관리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시설물의 통일·일관성 유지를 위한 분야별 표준디자인을 연차적으로 확대 개발해나갈 예정이다.

김성은 도시디자인담당관은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각종 제도마련을 통해 제주 특색에 걸맞는 친환경적이고 예술적인 공공디자인 개념을 도입하는데 노력할 것"이라며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함께 보전하고, 도민 모두가 사용이 편리하고 안전하며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을 구축하는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알림
KITS KOREA International TOURISM SHOW 2019 제4회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
한라일보사는 전국 10개 지역 신문사,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 조직위원회와 공동으로 「제4회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를 오는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3홀에서 개최합니다.
「제4회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는 각 지역의 자치단체와 기업·기관 관계자가 직접 참여, 우수 관광콘텐츠를 소개하고 홍보하여 관광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행사로, 제주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홍보관과 제주개발공사의 삼다수 홍보 부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관광기념품대전, 대한민국 여행 유튜브·블로그 페스티벌, 귀농귀촌 특별대전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지는 본 박람회에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일시 : 2019년 8월 15일(목)~18일(일)
▶장소 :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3홀
▶주최 : 한라일보,강원도민일보,국제신문,경기일보,경남일보,경북일보,전남일보,전북도민일보,중도일보,충북일보,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 조직위원회
▶주관 : ㈜유니버설라이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고양시, 한국관광협중앙회

WINNER
올해의 브랜드 대상
2019
2019 올해의 브랜드 대상
라이프 스타일 호텔 부문 1위 선정
글래드 호텔
메종 글래드 제주를 포함한 글래드 호텔 브랜드가
한국소비자포럼 주관 2019 올해의 브랜드 대상 대국민 투표 결과,
올해를 빛낸 최고의 브랜드로 선정되었습니다.
Every GLAD Moment!
최고의 가성비로 고객이 머무는 모든 시간과 공간이 기쁘고
특별한 경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래드 꿀맛 1+1 페스트
2019 올해의 브랜드 어워드 수상을 기념하여
글래드 호텔이 시원하게 쏘는 꿀단지에 빠져보세요!
응모기간 2019년 8월 1일 ~ 31일 (당첨자 발표: 9월 5일)
이용기간 2019년 9월 5일 ~ 11월 30일
혜 택 식사 또는 음료 1+1 제공 (추가 인원은 정상가 지불)
참여방법 홈페이지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클릭 후 원하는 레스토랑 선정
(1인당 최대 3개 업장 신청 가능)
*글래드 호텔 홈페이지 www.glad-hotels.com
문 의 064.747.4900
참여호텔 MAISON GLAD JEJU · GLAD YEOUIDO · GLAD MAPO · GLAD GANGNAM COEX CENTER · GLAD LIVE GANGNAM
메종 글래드 제주 참여 업장
8월 중 OPEN
갓포아키
중식당 '청'
뷔페 레스토랑 '삼다정'
프리미엄 키즈 카페 '릴리펏'
카페 '아티제'
정글북 by 엘리스바